

# 순천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미래 먹거리 선도

내년부터 3년 간 200억원 투입 산업전 등 문화콘텐츠 사업 전개 유희공간 순천형 레지던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되며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계획이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2025년부터 3년간 국비 100억원의 지원을 포함,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사업은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문화콘텐츠 복합 전시 및 교류 행사로 콘텐츠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

순천시 제공

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기획안 및 IP 창·제작 지원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한 순천형 레지던시 조성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성을 갖춘 순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되면서 올 한 해 △순천로드 창작 캠프 △찾아가는 정원문화카페 △유니버설 디자인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부제: 올텐가!(All Content Garden)) 등 4개의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예비사업의 성과와 지난 11월 진행된 현장 실사, PT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 상상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지역상품권 15% 할인 1월 한 달간, 지류 전환인 등

고흥군은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민생 안정 고흥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민생 안정 고흥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은 지류, 고흥사랑카드,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 모두에 적용된다.

지류는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고흥사랑카드와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결제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1인당 6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지류는 고흥군 관내 45개 금융기관(농·축협 30, 수협 6, 새마을금고 4, 신협 3, 산림조합 1, 광주은행 1)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고흥사랑카드와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으로 충전해 사용 가능하다. 고흥사랑카드의 관내 NH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중 한 곳에서 발급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5일까지 고흥사랑상품권 총 336억원을 발행했으며 이 중 일반발행은 238억원, 정책발행은 98억원이다. 오는 2025년에는 일반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0억원 늘린 258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변경 광양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광양시가 202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변경 시행한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인상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는 2015년 인상안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반려견 배변 수거문제, 1인 가구의 증가,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 세분·다양화에 따라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졌다.

종량제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부담율과 인근 지자체 수수료 요율을 합산해 도출한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2월14일부터 6월28일까지 전문 용역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해 지난 9월12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조정안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1ℓ를 신설(50원)하고 나머지 용량은 동결 △광양시 누리집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해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은 기존 72개 품목(116개 세부기준)에서 116개 품목(219개 세부기준)으로 확대, 평균 수수료 20.2% 인상 △공동주택의 공동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kg당 25원에서 32원으로 평균 수수료를 28% 인상, 단독주택 등 집을 구입 후 부착해 음식물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각 용량별 평균 수수료를 22.7% 인상 등이다.

조정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분야별 세부 조정(신설·동결·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공모 장흥군, '관산읍 옥당지구' 선정

장흥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서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뉴빌리지사업은 전면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는 주차장, 안전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지원해 비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1월부터 도시재생 특화재생형 사업으로 공모를 준비했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맞춰 관산읍 옥당지구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최적화된 대상으로 판단하고 공모사업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군은 전문가 컨설팅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 수정했으며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산읍 옥당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 분석,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진행, 250억원 규모의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옥당지구는 총 사업비 2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시행된다.

사업 내용은 △민간 자율주택정비사업 34세대(다세대 24세대, 개별주택 10세대) △집수리 지원(28세대) △골목 및 배수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공동주차장(4개소, 250면) △생활체육마당 △생활문화복합센터 △마을돌봄 사랑방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관산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인프라를 현대화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관계자들이 최근 풍양면 유자공원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유자 동해 예방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유자과수 동해 예방' 현장 시연

고흥군은 유자 동해 예방을 위해 최근 풍양면 유자공원 내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자 동해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 9도 이하로 지속되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피해 증상으로는 유자나무

에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해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갑고 건조한 냉기가 주로 정체되는 뿌리 근처의 지제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들은 약 40cm 높이의 주간

부위를 짚 등 피복재로 감싸거나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발라 유자나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는 지난 24일 풍양면 유자공원 내 포장에서 피복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후 종류별 짚, 수성페인트, 주름관에 왕겨 피복, 무피복 등을 활용한 동해 예방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 실증 연구해 효과적인 방법을 선별할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 "을사년 새 희망" 제29회 여수향일암일출제 개최

12월31일~2025년 1월1일까지 오동도·무술목 등 분산 일출제

전국 4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인 향일암에서 맞는 '제29회 여수향일암일출제'가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개최된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향일암일출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첫날인 31일 시립예술단의 공연과 소원 성취 송년 길놀이 등 풍성한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와 소원 촛불 밝히기, 제야의 종타종으로 진행된다.

특히 새해를 맞이한 1월1일 오전 12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사업장의 지원으로 신년 불꽃쇼를 연출해 색다른

불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새해 소원지 달기, 이니셜 소원 팔찌 만들기, 을사년 푸른별 염쇠고리 만들기, 새해 덕담 엮서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방문객들을 위해서는 핫팩과 시루떡, 따뜻한 음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행사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방문객 주차 편의를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주차장 만차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한 후 셔틀버스 12대로 행사장 인근까지 수송할 방침이다. 임시 주차장은 △소울 신도로 △대울 평화테마촌 △방죽포 해수욕장 △

갓고을센터 △죽포삼거리 일대 등 5개소 1500면이다.

또 여수경찰서와 여수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25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오동도, 둘산 무술목, 소호 요트경기장, 만성리해수욕장, 구봉산 등 지역 내 일출 명소에서도 일출제를 개최해 방문객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일출·일몰 명당 여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을사년 새해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